

##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장후은<sup>1</sup>, 허선영<sup>2</sup>, 이종호<sup>3\*</sup>

<sup>1</sup>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sup>2</sup>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BK21PLUS,

<sup>3</sup>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산학협력정책연구소

##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Korean Univers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Policy

Hoo-Eun Jang<sup>1</sup>, Sun-Young Heo<sup>2</sup>, Jong-Ho Lee<sup>3\*</sup>

<sup>1</sup>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2</sup>BK21+,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 Director,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현장실습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의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 이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현장실습의 자립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현장실습의 실효성이 낮은 단기 위주의 현장실습이 중심이 되고 있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학의 조직 역량이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현장실습은 전공 관련 현장에서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학사과정의 한 부분이므로, 학생들의 실습기간에도 대학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12주 이상의 장기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 부여와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한 현장실습의 질 관리를 통해 참여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Co-operative education and internships are generally treated as an alternative way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by resolving the mismatch between college education and the industrial needs of the job specification.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on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rograms and the operating mechanism for co-operative education and internship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depth and width of co-operativ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carry out internships on a short-term basis and the universities usually lack the capabilities for effectively running the programs of co-operative education and internships. In particular, as a part of the academic curriculum, co-operative educa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balance and effective linkage between the occupations given to students and the majors in university.

**Keywords** : co-operative education, field placement, internships, university,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A02074068).

\*Corresponding Author : Jong-Ho Lee(Gyeongsang National Univ.)

Tel: +82-55-772-2185 email: jhl@gnu.ac.kr

Received December 5, 2016

Revised (1st December 27, 2016, 2nd January 4, 2017, 3rd January 23,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4th February 2,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 1. 서론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을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다.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대학생은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기업은 우수한 인재의 조기 확보와 고용비용·재교육 비용의 절감, 대학은 산학협력체제 구축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채용방식 변화,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현장실습 운영 현황이 포함됨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 및 학생, 실습기관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4학년도 현장실습 참여 대학은 403개교, 참여 학생 수는 149,749명, 참여 실습기관은 89,485개사로, 각 2011년 대비 186%, 47%, 1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1].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6-89호)을 제정하고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대학별로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로써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기준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기준이 정비되어,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실적을 내기 위한 밑거름이었던 추진으로 현장실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현장실습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제는 대학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현장실습의 자립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의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질적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4년제 및 전문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 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 2. 현장실습 관련 연구동향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국내외 대학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시사점이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북미와 유럽의 대학들 가운데, 장기현장실습을 전교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신시내티(Cincinnati)대학, 드렉셀(Drexel)대학, 노스이스턴(Northeastern)대학, 캐나다의 워털루(Waterloo)대학 등이 선진 사례로 많이 소개되었다[2]. 반면, 조재수 외[3]는 비교적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 지역 대학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종호 외[4]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대학과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센트럴워싱턴(Central Washington)대학을 사례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해외 사례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 사례 연구는 특히, 고용노동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대학이었던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제도 제안[5], 학사 운영 방안[6], IPP 전담교수의 역할 제고[7], 프로그램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8]등을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순식[9]은 LINC사업 참여 대학인 충청지역 A대학을, 박경우·박익수[10]는 M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또한 한지영·방재현[11, 12]는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관리 시스템 모형 및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사례 연구를 통한 공통적이며 원론적인 제안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전국 대학의 전반적인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 운영 실정을 반영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대학 현장실습 운영 실태

#### 3.1 대학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 개요

전국 대학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는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국 대학에 교육부 공문을 배포하여 이루어 졌으며, 메일로 회수되었다. 실태 조사 대상 대학은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본교 및 캠퍼스로 총 328개교(201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이다. 이 가운데, 실태 조사에 응답한 대학의 본교 및 캠퍼스는 287개교로, 회수율은 87.5%이다. 실태 조사 응답 대학을 설립구분별로 구분하면, 4년제 대학은 국공립 29개교, 사립 113개교로 총 142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국공립 9개교, 사립 136개교로 총 145개교이다. 실태 조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실습기관 현황,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 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3.2 대학 현장실습 운영 현황

대학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에 응답한 대학에서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181,532명이며, 실습기관 수는 88,061개사이다. 특히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 설립구분별로는 사립 전문대학이 109,377명으로 전체의 60.3%에 이르며, 다음으로 4년제 사립대학 50,095명(27.6%), 4년제 국공립대학 19,256명(10.6%), 국공립 전문대학이 2,804명(1.5%)이다.

그러나 이를 현장실습 실습기간별로 구분하면,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인 91.2%가 4주와 8주 이상의 단기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12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8.8%에 불과하다. 대학 설립구분별로는 4년제 사립대학이 12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제 국공립대학은 그 절반 정도인 9.9%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는 4주 이상의 단기현장실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Fig. 1 참조).

□ more than 4weeks ■ more than 8weeks ▨ more than 12weeks  
(Unit : %)

Period	Category	more than 4weeks	more than 8weeks	more than 12weeks
Total		78.5	12.7	8.8
4-year university	National & Public	74.4	15.7	9.9
	Private	57.8	23.0	19.1
2-year college	National & Public	93.4	0.5	6.1
	Private	88.3	7.7	4.0

Fig. 1. Student Participation Rates of the University Field Placement by Period

장기현장실습은 최소 12주 이상으로 학기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정규교과목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커리큘럼 개편이 보다 용이한 4년제 사립에서의 장기현장실습 참여가 활발하다. 전문대학의 경우, 장기현장실습을 위한 실습학기제를 운영 중이기는 하나 2, 3년의 짧은 커리큘럼 상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12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체 대학에서 15,985명으로, 4년제 대학이 11,484명, 전문대학이 4,501명이다. 이러한 장기현장실습 참여 학생 가운데,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수급 받은 학생과 금액에 대해 조사하였다. 운영규정에서의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이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습지원비를 수급 받은 학생은 장기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의 67.8%인 10,845명이다. 나머지 32.2%의 5,140명은 실습지원비 수급 여부가 파악 가능하지 못한 학생들로 전부가 실습지원비를 받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실습지원비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60만 원 이하가 5,230명으로 가장 많은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61만 원~115만 원과 116만 원 이상이 각각 25.7%, 26.1%이다(Table 1 참조).

최근 열정페이가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노동착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규정의 실습지원비 지급 조항은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학 또한 현장실습 수행을 위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실습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책무

가 있다. 장기적으로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필요에 의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이에 대해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Student Number of the Participation and Receiving a Fund in Co-op Education (Unit : no. of persons(%))

Type		Student Participation Number of Co-op	Student Number of Receiving a Fund
U*	National & Public	1,901 (100.0)	1,231 (64.8)
	Private	9,583 (100.0)	7,158 (74.7)
	Subtotal	11,484 (100.0)	8,389 (73.0)
C**	National & Public	172 (100.0)	147 (85.5)
	Private	4,329 (100.0)	2,309 (53.3)
	Subtotal	4,501 (100.0)	2,456 (54.6)
Total		15,985 (100.0)	10,845 (67.8)

\* U - 4-year university

\*\* C - 2-year college

Source : Survey results

### 3.3 대학 현장실습 운영 조직 및 인력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대학 현장실습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한 대학은 전체 287개교 가운데 66.9%인 192개교이다. 현장실습 운영 전담 조직 설치 대학의 대부분인 95.3%가 현장실습 총괄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미설치 대학의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교무처, 학생과 등의 조직에서 현장실습을 총괄하고 있다. 현장실습 업무만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된 대학은 38.0%의 109개교에 불과하다. 현장실습 전담 인력은 176명으로, 평균 1.6명이다(Table 2 참조).

**Table 2.** University Number of the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in Field Placement (Unit : %)

Type		Case	Field Placement Organization	Field Placement Professional
U*	National & Public	29 (100.0)	23 (79.3)	14 (48.3)
	Private	113 (100.0)	60 (53.2)	48 (42.5)
	Subtotal	142 (100.0)	83 (58.5)	61 (43.0)
C*	National & Public	9 (100.0)	7 (77.8)	3 (33.3)
	Private	136 (100.0)	102 (75.0)	45 (33.1)
	Subtotal	145 (100.0)	109 (75.2)	48 (33.1)
Total		287 (100.0)	192 (66.9)	109 (38.0)

\* U - 4-year university

\*\* C - 2-year college

Source : Survey Results

현재 대학별 운영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별도 전담 조직, 개별 학과에서 운영 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LINC 사업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실습 참여 학생 및 실습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운영규정 제 10조에서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현장실습에 관한 총괄적인 조정·관리, 참여 학생 대상 사전교육, 현장실습 수행 점검 등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3.4 대학 현장실습 운영 지원 프로그램

대학 현장에서의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Table 3과 같이, 대학 자체적으로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92.7%인 266개교로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현장실습 운영은 대학별로 세부적으로 서로 다른 절차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은 학생용으로 별도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74.2%인 213개교이며, 실습기관용 운영 매뉴얼은 전체 56.8%인 163개교이다. 운영 매뉴얼은 학생 및 실습기관에게 대학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별로 상이한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형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단순한 설명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46.7%인 134개교이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비효율성과 실습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도입하고 있으나, 정착화하는데 시간과 지속적인 보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대학 내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대부분의 대학이 자체 운영 지침은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매뉴얼 및 온라인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Availability of Field Placement Support Program in the University (Unit : %)

Type	Case	Operating Regulations	Operating Manuals		Online Systems	
			Student Manuals	Firm Manuals		
U*	National & Public	29 (100.0)	27 (93.1)	24 (82.8)	18 (62.1)	16 (55.2)
	Private	113 (100.0)	102 (90.3)	78 (69.0)	59 (52.2)	55 (48.7)
	Subtotal	142 (100.0)	129 (90.8)	102 (71.8)	77 (54.2)	71 (50.0)
C*	National & Public	9 (100.0)	8 (88.9)	8 (88.9)	6 (66.7)	2 (22.2)
	Private	136 (100.0)	129 (94.9)	103 (75.7)	80 (58.8)	61 (44.9)
	Subtotal	145 (100.0)	137 (94.5)	111 (76.6)	86 (59.3)	63 (43.4)
Total	287 (100.0)	266 (92.7)	213 (74.2)	163 (56.8)	134 (46.7)	

\* U - 4-year university

\*\* C - 2-year college

Source : Survey Results

#### 4. 대학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전국 대학 현장실습 운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대학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현장실습은 양적인 성장과 제도적 여건 개선을 이루었으나, 현장실습의 실효성이 낮은 단기 위주의 현장실습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은 전국에 약 18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2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은 8.8%에 불과한 실정이다.

4주 또는 8주간의 단기현장실습은 전공분야 업무에 투입보다는 단순 작업에 투입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학생과 실습기관 모두 만족도가 낮다. 이에 단기현장실습 위주에서, 학생의 전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무적인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장기현장실습 위주의 현장실습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이 단기간에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대학정보공시 및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가 지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각 대학들은 현장실습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밀어내기식의 현장실습 운영에 치중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존 대학현장실습의 단기적·형식적·양적 성과지향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장기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및 참여

비율의 절대치 등에 의한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장기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한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개발 및 적용이 요청된다.

대학생 현장실습 실적 평가에 있어서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장기현장실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에 대한 엄격한 선정, 학생에 대한 심층면담, 학생과 기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생과 실습기관을 연계해주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장기현장실습,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실습기관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경우, 2015학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부터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은 학생 수에 대해 제출하고 있다. 단기현장실습은 현실적으로 실습기관으로부터 실습지원비를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사료된다. 장기현장실습의 경우,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기업 업무에 투입되어 수행함으로써 참여 학생과 실습기관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다. 이에 장기현장실습의 실습지원비 수령 학생 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둘째,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학의 조직 역량이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프라 기반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대학 현장실습 전담 조직을 설치

한 대학은 전체의 약 67%, 전담 인력을 배치한 대학은 38%에 불과하였다.

효과적인 대학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 지원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은 기업과 대학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업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조직의 운영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행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의해 각 대학에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현장실습 코디네이터’의 양성이 시급하다. 현장실습 코디네이터는 현장실습 운영 관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상담가로서의 역할이 크다. 또한 현장실습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현장실습 코디네이터는 교육 설계 및 목표 달성도 평가 등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7]. 대학생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개발 및 운영의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대학 현장실습 전담 인력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인력의 전문성 확보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실무자들을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표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인력구성을 교수, 코디네이터, 행정직원 등으로 계층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간 인사이동을 최소화 하여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의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운영될 경우에는 대학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조직적 역량과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까지 센터 운영과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미흡하다. 대학 내 현장실습 운영 규정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 학생용과 실습기관용 매뉴얼

및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활용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장실습은 전공 관련 현장에서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수업의 일환이므로 대학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 부여와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한 현장실습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학생 현장실습이 대학 교육과정인 ‘수업’으로써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학생 현장실습의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만 현장실습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참여자이면서 주체자인 학생과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매뉴얼 개발,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적어도 산업군에 따른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및 실습기관용 매뉴얼의 개발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5. 결론

최근 산업현장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무 지향적·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교육 모델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학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생, 기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실태 조사·분석 결과, 단기현장실습 위주의 운영과 미흡한 대학 인프라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해 학생은 전공 관련 실무 및 취업 능력을 향상하고, 기업은 검증된 인력과 맞춤형 인재 사전확보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량적 성과 위주의 구분별한 현장실습을 방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장실습의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한 바탕으로는 무엇보다

대학, 학생, 기업, 정부의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북미나 유럽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대규모 공채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부서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장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 선발 제도와 문화가 성숙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인재 선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의 활성화 및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학생과 기업이 자발적 필요에 의해 상호작용 관계에 기초한 현장실습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대학 현장실습의 생태계를 창출하고 육성·유지하는 현재 단계에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각종 대학 현장실습 관련 사업을 통해 양적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의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 여건에 따른 특성화된 현장실습 모델이 창출·확산되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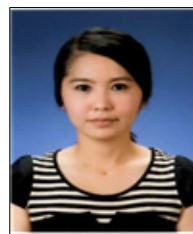
- [1] 2014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ctivity Research, Ministry of Education-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6.
- [2] M. S. Lee, C. H. Oh, N. H. Kim, J. H. Ha, "A Case Study for Critical Success factors of US and Canadian Co-op Programs",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3(2), pp. 121-127, 2011.
- [3] J. S. Cho, J. H. Ha, K. Y. Om, C. H. Oh, N. H. Kim, "A Case Study of Asian Colleges's Co-op Program for Successful Operations of IPP Program",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5(1), pp. 73-79, 2013.
- [4] J. H. Lee, M. S. Chae, H. E. Jang,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o-operative Education in a Regional Public University: The Case of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US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1(4), pp. 639-648, 2015.
- [5] W. Y. Lee, S. H. Cho, J. S. Seol, D. S. Son, "A Study on Managing Industrial Professional Practice(IPP) at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4(1), pp. 99-107, 2012.
- [6] C. H. Oh, J. H. Ha, N. H. Kim, J. S. Cho, K. Y. Om, "Academic Program Operation for the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mplementat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4(2), pp. 110-115, 2012.

- [7] C. H. Oh, "The Roles of IPP Professor for Successful Operations of IPP System : Based on KOREATECH Case Study",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5(2), pp. 129-137, 2013.  
DOI: <https://doi.org/10.14702/JPEE.2013.129>
- [8] C. H. Oh, K. Y. O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for Co-op Programs in Universities: Focused on the Case of KOREATECH",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Special*, 32(4), pp. 155-173, 2015.  
DOI: <https://doi.org/10.7737/KMSR.2015.32.4.155>
- [9] S. S. Choi, "A Study on the effective strategy of "How to activate Field Training Internships" : Focused on LINC Business of A University in Chung cheong Region, *Korean review of management consulting*, 6(1), pp. 151-175, 2015.
- [10] K. W. Park, I. S. Park,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present state analysis of the industry field train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9(2), pp. 97-101, 2016.  
DOI: <https://doi.org/10.18108/jeer.2016.19.2.97>
- [11] J. Y. Han, J. H. Bang, "Development of a Model for Management System in Internships or Field Train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7(3), pp. 42-50, 2014.  
DOI: <https://doi.org/10.18108/jeer.2014.17.3.42>
- [12] J. Y. Han, J. H. Bang, "Development of Pre-training Program for Internship or Field Training for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8(4), pp. 3-12, 2015.  
DOI: <https://doi.org/10.18108/jeer.2015.18.4.3>

장 후 은(Hoo-Eun Jang)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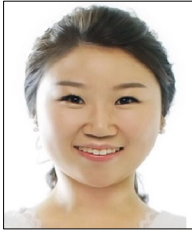
- 2013년 3월 :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학술박사(인문지리)
- 2015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경제지리학, 산학협력정책, 도시 및 지역개발

**허 선 영(Sun-Young Heo)**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 2013년 10월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학술연구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7월 :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2016년 8월 ~ 현재 : 경상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학술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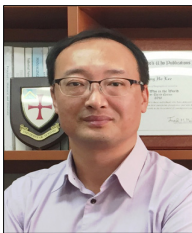
<관심분야>

도시 및 지역계획, 산학협력정책, Smart City, 안전도시

---

**이 종 호(Jong-Ho Lee)**

[정회원]



- 2002년 6월 : 영국 Durham University 대학원 지리학과 경제지리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2015년 12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경제지리학, 도시 및 지역개발, 산학협력정책

---